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선율로 부처님 법문 찬탄”

비파(琵琶)의 비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전국의 유명 사찰들에서 아직도 사천왕상의 위치와 이름을 혼동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다. 가끔 성지순례를 가보면 위치는 제대로이지만 사천왕상의 이름을 모두 다 바꿔놓고 전부 틀린 사찰들이 꽤 있다.

그런데 그렇고 오늘날은 불국도의 동쪽을 지키는 동방 지국천왕의 지물인 비파(琵琶)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항상 사천왕각을 지날 때마다 지국천왕이 지니고 있는 비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채 바라보지만 한 적이 많다.

〈약사여래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에 의하면 지국천왕은 비파를 든 것으로 되어있다.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에는 왼손에 팔을 내려 칼을 잡고, 오른 손엔 보주(寶珠)를 쥐고, 일차불정륜경에 의하면 왼손엔 칼을 오른손은 손바닥을 올려놓는다고 되어있다.

동방 지국천왕의 지물(持物)

한국 향비파 당비파 전해져

포교 위해 연주자 양성 필요

현재는 전국 사찰의 대다수의 사천왕각의 지국천왕상은 주로 비파를 손에 쥐고 연주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야소카왕경)이나 〈방등대집경〉(方等大集經)에 의하면 수미산을 다스리는 제석천과 부처님이 동방에서 불법(佛法)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한다.

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연주되고 있는 비파는 원래 서역(西域), 즉 인도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의 석명(釋名)이라는 책에 의하면 '비파는 밖으로 내어 타면 비(琵琶)요, 안으로 들어 타면 파(琵琶)라고 한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2종의 비파가 전하는데, 향비파(鄕琵琶)와 당비파(唐琵琶)가 그것이다.

향비파와 당비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비파는 공명통에 머리 부분이 곧은 경(頸), 즉 직경(直頸)을 지닌 5현의 악기인데 반해, 공명통에 머리 부분이 흰 곡경(曲頸)을 지닌 4현의 악기이다. 향비파는 신라시대에 이미 전해져서 연주되었다 한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술대



지국천왕도

를 거문고처럼 자(自)자 모양으로 쥐고 옆으로 굽어 소리를 낸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연주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악기들이 전제된데 반해 일본과 중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주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동방 지국천왕이 주로 연주하는 비파는 여기에서 당비파이다. 향비파와는 다르게 목 부분이 휘어진 곡경(曲頸)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실제의 비파 악기들과는 다르게 지국천왕이 지닌 비파는 상단에 두 개의 눈이 붙어 있다. 이 눈들이 상징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난초를 그릴 때 잎을 그리는 선이 교차할 때, 처음 나오는 기법을 봉안(鳳眼)이라고 부르고 다시 한 번 선을 겹칠 때 상안(象眼)이 나온다. 그 코끼리의 눈이 정확히 비파의 양 눈과 일치하는데, 멀리 올려진 비파의 끝 부분을 보면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늘어져 있다.

비파의 두 눈은 코끼리의 눈이었던 것이다. 옛 계승에 이르기를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없애지니, 씩씩한 코끼리 새끼 그 가풍을 이었네'라는 말이 있다.

상왕(象王)은 부처님을 상징한다. 지국천왕의 연주는 부처님의 법문을 찬탄하기도 하고 법문을 펼치기도 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불교 음악을 발전시키고 포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비파 연주자들을 불교에서 양성하면 좋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삶·사유·예술 새롭게 모색한 사찰 여행

화가 이종승·사진가 전성영  
‘남자의 여행展’ 8월 28일부터

한국인들에게 있어 사찰은 신앙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위치한 사찰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사색을 즐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사유의 공간이며 비움의 공간이다. 그래서 피 끓던 청춘의 시기를 지나 중년으로 접어드는 이들에게 절이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은 절을 찾는지 모른다.

세 남자의 여행도 이렇게 시작됐다. 시인 유명중, 화가 이종승, 사진가 전성영은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찰 여행을 떠났다. 자신들의 삶에, 사유의 방식에 또 추구하던 예술의 세계를 새롭게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이렇게 6년여 시간 사찰로 떠났던 세 남자의 이야기와 그림과 사진이 책 《남자의 여행》으로 출간됐다. (본지 900호 보도) 그리고 이를 기념해 8월 28-9월 2일 종로구 통의동 류가헌서 화가 이종승과 사진가 전성영의 ‘남자의 여행展’이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찰을 배경으로 한 그림 20여 점과 사진 10여 점이 전시된다. 이들은 여행을 통해 느꼈던 삶의 변화를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아냈다.

이종승 화가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나 다워졌다’라고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동안 사실적 객관적인 작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 주변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온전히 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죠. 주변의



천불산 불사바위에서 내려다 본 전남 화순 운주사. 왼쪽은 전성영 작가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종승 화가의 그림이다.



불혹을 맞은 세 명의 남자가 사찰 여행을 떠났다. 6년 여 시간 동안 함께 여행하고 작업한 글과 그림과 사진을 담아 《남자의 여행》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했고 8월 28일부터 류가헌서 전시회를 연다. 사진 왼쪽부터 화가 이종승, 시인 유명중, 사진가 전성영 씨.

비우기 위해 떠났는데

꿈·사랑·공존 가치 얻어

6년 간 40여 사찰 여행

류가헌서 단행본 출간 기념전

이야기를 벗어나 가장 다다워진 세계를 표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찰 벽화 작업을 해온 이종승 화가는 흠뻑화 기법을 이용한 ‘움직이는 산 시리즈’를 선보인다. 영주 부석사, 강진 무위사, 여주 신륵사 등 주관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자연과 사람 동물들을 함께 담아낸 작품 20여 점



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지난 시간 동안 전북 김제 망해사, 전남 강진 백련사, 경남 합천 해인사, 전남 화순 운주사 등 40여 개의 사찰을 찾아다녔다. 때로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각자 혼자 떠나 사색에 잠기며 고민하기도 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때로는 절경의 풍경을 만끽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고민했다.

사진작가 전성영 씨 역시 이번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전한다. “그동안 역사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많이 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방 문명의 흐름을 좇아다니며 유적이 가진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절보다는 유적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사찰 여행을 통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절을 보게 됐죠. 과거의 삶을 좇던 저는 절속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었고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작품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행을 단순히 책을 출간하거나 전시를 하기 위한 목적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 명의 남자는 계절 따라 작품 따라 또 때로는 각자의 상황과 감성 따라 수차례 절을 찾아 다녔다.

백련사 동백꽃을 보기 위해 또 그것을 느끼기 위해 혹은 눈 위에 떨어진 동백을 감상하기 위해 그렇게 몇 번씩 백련사를 찾았고 절경의 순간을 표현해냈다. 또 너무나 잘 생각하고 지적하기까지 한 화업사의 완벽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몇 번을 들렀고 오랜 고민 끝에 작품을 만들어냈다. 한 사찰을 찾는 횟수가 최소 2-3번은 기

본이었고 많게는 15회~20번까지 간 절도 있다. 그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했고 사유했고 느꼈다. 누군가 돈을 주며 강제로 시켰다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번 여행은 자신과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즐겼고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다. 하나의 절을 보고도 각자가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셋은 자신들의 작업을 개별성과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라고 말한다.

시인 유명중은 이번 작업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한다. “비우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나는 세상 속에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렇게 세 명의 작가들은 비우기 위해 절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꿈 사랑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화가 이종승은 히말라야와 티베트를 찾고 사진작가 전성영은 역사 다큐를 위해 또 시인 이명중은 비움의 삶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하지만 또 이들은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시각적 작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모여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이라 다짐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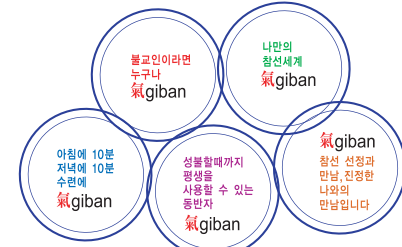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6cm]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동의보향 무료 향기 체험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화주시면 바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용 본사부담)

동의보향 덤 증정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시 수량별 추가 덤 증정 (전제품 선물용 소포백 포함)



동의보향은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동의보향은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공간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향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